

4 종합

2024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 15일 오비스홀에서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가 개최됐다. ‘미래 대학을 향한 열린 교육혁신:경희대학교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과 공유회는 새로운 대학 교육 개발을 위한 비전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교육혁신사업단 이원구 단장은 “지속가능한 교육혁신,글로벌 교육 리더십 강화,모두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교육혁신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혁신사업단의 오늘과 내일, 2024년 혁신 성과 공유(교육혁신사업단 장유진 책임연구원) ▲자율전공학부 열린전공의 로드맵과 활성화 전략(이정희 자율전공학부장) ▲Innovation Embedded, 혁신 교육 내재화 전략(교수학습개발원 지상현 원장)을 소개했다.

‘자율전공학부 열린전공의 로드맵과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정희 자율전공학부장은 “자율전공 교육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 탐색 교과 이수, 진로 상담, 선배 멘토 매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한 전공 탐색 기회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졸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상현 교수학습개발원장이 혁신 교육 내재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 원장은 생성형 AI와 AR/VR을 활용한 혁신적 수업을 소개했다. 생성형 AI의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를 배부하며 “AI를 행정적, 제도적으로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안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용 가이드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

했다. AR/VR 기반 교육콘텐츠가 적용된 성인간호학실습의 한 수강생은 “시뮬레이션 실습의 생생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상자를 사정하고 여러 술기를 배우며 테스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세션으로 학생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쿠니브 ‘본인등관’ 영상 ▲융합과 혁신: 학부 연구생 학술제 ▲경희명의: 베토벤 로드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와 경험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과 혁신: 학부 연구생 학술제’ 발표를 맡은 김지훈(한방생명공학 2022) 씨는 희귀 미생물로부터 2차 대사산물을 얻어내는 연구를 진행했다. 학부 연구생 주도로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였다. 김 씨는 “희귀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을 진행한 입장에서, 실수하면 새로운 미생물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학술제에 참여하는 학부 연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베토벤의 도시를 걷다’를 주제로 강의 영상을 제작한 경희명의는 ‘2024 SUIF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학생 대학혁신 사례 영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5개월간 약 3만 6천 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번 공유회에서 소개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받았다. 우리학교 역사상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이에 따라 132.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전년 대비 31.5% 많은 지원비다. 교육혁신사업단 장유진 책임연구원은 “2025 성과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가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사진=김규연 기자)



서울캠 중앙도서관 옆 언덕에 안전 난간이 설치됐다.

(사진=이환희 기자)

청운관 리모델링, 문과대 공사 새학기 대비 준비 한창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방학을 맞아 캠퍼스 새 단장이 한창이다. 청운관 지하 1층에는 ‘KHU Creative Commons’와 생협 카페가 새롭게 들어온다. 문과대는 화장실과 강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자율전공학부는 공간을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청운관 지하 1층 B117호 앞에는 ‘KHU Creative Commons’가 새롭게 생긴다. 이곳에는 교수학습개발원이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스튜디오를 설치 중이다. 같은 공간에 학생을 위한 쉼터도 함께 만든다. 생협 카페 ‘줍카페’는 청운관 지하 1층 복사실과 편의점 사이에 들어온다. ‘줍카페’는 할리스 커피와 생협이 함께 만든 카페 브랜드다. 겨울방학에 공사를 마쳐 올해 봄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캠 생협 김민하 사무국장은 “이용자 반응이 있으면 향후에 이과대나 푸른솔에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과대는 화장실 공사와 강의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문과대는 화장실 역류로 학생과

직원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문과대는 학교 지원으로 화장실 공사와 함께 강의실 리모델링까지 한 번에 하게 됐다. 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자율전공학부는 무전공 확대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대비한 공사를 한다. 무전공 제도 도입으로 최근 3년 연속 72명이던 자율전공학부의 입학 정원이 165명으로 확대되어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구)한의과대 건물을 사용 중인 자율전공학부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건물 4층에서 2층으로 확대 이전한다. 지난 18일부터 확대 이전 공사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4층 공간의 절반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2층 공간을 모두 사용한다. 자율전공학부 행정실 이진섭 실장은 “기존에는 4층에 강의실 1개, 열람실 2개, 행정실이 전부였지만 학생회실과 과방을 배치하고 열람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한 시설도 생겼다. 관리팀은 겨울철 빙판길이 되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중앙도서관 옆 언덕에 좌우로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교시탑에서 스페이스 21로 올라가는 언덕에는 열선을 설치해 도로 결빙을 방지한다. 총무관리처 한덕영 관리팀장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서 우선적으로 열선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과대 화장실과 강의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환희 기자)

1면에서 계속 →

이후 16일 제1차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제16대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정학생회장의 사퇴 수리 건’이 가결됐다.

자율전공학부 학생회가 공개한 손 씨의 사퇴서에는 “임기를 다하지 못하여,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사퇴라는 선택에 따르는 비난 등 일련의 상황을 감수할 것”이라 적혀있었다.

사퇴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손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며 거듭 고민했다”고 밝혔다.

자율전공학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비대위장은 유태경(자율전공 2023) 씨가 맡았다. 유 비대위장은 지난해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부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은 2024년 72명 규모에서 2025년 16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무전공제로 학부 정원이 늘어난 상황인데, 각종 복지 사업 및 공간 문

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소통해야 하는 학생회장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율전공학부 3학년 학생은 “구한대의 건물이 다른 단과대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자율전공학부 비대위 측에게 비대위 운영 계획과 무전공 제도 확대에 관한 대응 계획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